

국민의당 추경 복귀...국회정상화 물꼬 트나

박주선-임종석 실장 회동
문대통령 유감 표명 수용
청문회 등 일정 협조키로



靑 참모들의 차담회 임종석 비서실장(가운데)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전병헌 정부 수석(왼쪽),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대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고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인 듯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 변수가 되고 있다. 조대업 후보자는 이날 정국 타개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조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어왔다.

최근 정국 정상화를 위해 여권 내부에서 '조대업 후보자 낙마' 카드가 거론됐었다는 점에서 결국 조 후보자의 사퇴에는 여권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야당들이 국회 정상화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점에서 야당들이 송 후보자 임명에 반발, 국회 일정 보이콧을 계속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국회 복귀도 국회 정상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바른정당도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회군을 검토하고 있다. 바른정당 측에서는 "정

외대가 이제야 야당의 이야기를 조금은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한 당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국회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나서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그 이전으로 복귀,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초래된 국회 공전사태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며 "그 뜻을 존중하며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추 대표의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에 드디어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민의당의 국회 일정 협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이어 "민생 문제가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대응적인 결단을 해주길 당부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

입지 좁아진 秋

靑 직접 野와 협상...주례 회동 요구에도 묵묵부답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좁아지게 됐다. 추미애 대표의 자극적인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당에 유감 표명을 하며 정국 돌파에 나섰다 때문이다. 여당 대표가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국 경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추 대표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여당 대표가 야권과 갈등을 일으켜 청와대가 중재할 것도, 정권 초기에 청와대와 여당이 소통 부재를 드러낸 것도 이례적이다. 여기에 입 실장이 박주선 비대위원장 만나 추 대표에 대해 '언컨트러블(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추 대표 측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입 실장이 박주선 위원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전병헌 정부수석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대리 사과'까지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당 내외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 대표일도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강성 발언이 부대러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추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 등 자주 만나는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에서 해외 순방 일정 등에 따라 별다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安 행보에 쏠린 눈

자속·고난의 행군 통한 복귀론 제기...민심 되돌리기 관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안 전 대표는 검찰이 이번 주 내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등을 재소환하기로 하는 등 뒷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만큼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를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기사

회견을 통해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은 만큼 적절한 기회가 주어질 때 정치권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 늦은 사과와 입장 표명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것은 물론 당 내에서의 눈길도 싸늘하다는 점은 안 전 대표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민생에 전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재 영입에 나서서 등 바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

'문준용 특검법' 카드로 내부 결집?

국민의당 대외 공세 강화...당내의 "현실성 없다" 싸늘

국민의당은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며 내부 결집과 파문 수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외 공세를 위해 뽑아든 국민의당의 '특검 카드' 자체가 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 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목소리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가치를 살려 국정 운영에 대한 시사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원내 3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안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 대선 당시 지도부가 모두 사과하고 입장을 정리한 만큼, 원내 캐스팅보트 입지를 부각해 나가며 제 3당으로서 위상을 되찾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국민의당은 제보조작 사건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까지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전날 발의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지난 2007년 국회 환노위에서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이 먼저 불거졌고, 지난 5월 대선 막바지에 이우미씨에 의한 제보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둘 다 명확히 틀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취업특혜 의혹이다. 준용씨 특혜취업 의혹은 (우리가 아니라) 과거 국회 환노위에서 먼저 제기됐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다. 특검으로 모두 털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한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협상 카드로 남겨둔 상태. 한편 문준용 의혹 및 이우미 제보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외 공세에 나선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고려하면 특검법 발의 자체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카드가 아니라는 목소리다. 민주당 김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의) 특검 추진은 전형적인 몰 타기다.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추구했던 새 정치를 무색하게 하는 사려저야 할 구태 정치"라며 "말로는 국민 앞에 조작사건에 사과한다고 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h@

박상기 "부정부패 척결·檢 신뢰 회복"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자료제출 싸움에 오전 파행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열렸으나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져 일시 파행도 경험했다. 오후 2시 속개됐다. 그는 검

찰·법무 개혁 방향과 관련,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정령성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실현하겠다"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부정부패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간)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 2억5천, 보증금 5천, 월 143만원)

【법원 경매/공매】

| 토 지 | 공 장 |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감평가 311,000,000 최저가 311,000,000 |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평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
|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평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평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
|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근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평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 ▶나주 왕곡면 송추리 계획관리지역 분노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평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
|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평가 58,000,000 | ▶나주 다시면 월태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평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

| 근 린 시 설 |
|--|
|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풍암동성당인근 토지 102평 건물 223평 감평가 984,000,000 최저가 689,000,000 |
|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평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
|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평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
|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평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
|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평가 49억 최저가 14억 |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